

# 트럼프 “전쟁 곧 끝나”... ‘이슬라마바드 2차 회동’ 급물살

## 이르면 16일 미-이란 대면 가능성

미국과 이란이 첫 종전 협상이 무산된 지 수일 만에 2차 대면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차 협상이 소득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휴전 만료 시한을 앞둔 이번주 후반이 최악의 파국을 피하고 외교적 해법의 불씨를 되살릴 고비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내 생각엔 거의 끝나는 것 같다. 그것이 중요되는 상태에 아주 근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날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곧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일간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신은 정말이지 거기(이슬라마바드) 머물러야 한다”며 “왜냐하면 향후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16일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실은 대목이다.

앞서 외신들은 이번주 후반 미국과 이란이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종전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레바논 국경의 이스라엘 군인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인근 남부 레바논의 파괴된 건물들 사이에서 있다. /REUTERS=연합뉴스

보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 외교가에서도 2차 종전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공식 경로’(back channels)를 통

한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만약 협상이 성사될 경우 미국 측 대표는 이

번에도 JD 밴스 부통령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CNN방송은 협상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

용해 밴스 부통령과 스티브 워코프 미 중동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2차 협상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3인방에게 종전을 위한 외교적 출구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들은 1차 협상 결렬 이후에도 이란 및 중재자 측과 접촉을 이어왔다고 CNN은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며 휴전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측 협상단은 오는 21일 휴전 만료를 앞두고 시한 연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아랍권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협상에 비협조적이었던 이스라엘도 사실상 협상 재개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1988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직접 휴전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에 합의하면된다.

만약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이 성사될 경우 전쟁의 한 축이 일단락되면서 무력 충돌 부담도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레바논 정권이 아닌 헤zbollah과 이스라엘 간 교전이라는 점에서, 양측 협상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 美 ‘244조원 규모’ 관세 환급 시스템 20일 가동

### 대법원 판결 전자결제 신청 175조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1천660억 달러(244조원)의 관세를 환급하는 시스템이 20일(현지시간)부터 1단계로 가동된다고 미국 주요 언론 매체들이 1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케이프’(CAPE)인 이 시스템은 개별 수입 신고 건별로 환급을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환급금 통합 처리를 지원한다.

이자가 붙는 경우에는 함께 계산돼 처리된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입 신고 건수가 여러 건이라도 환급금을 단번에 전자결제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국 국제 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알려졌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을 전자결제로 받기 위해

신청을 마친 수입업자의 수는 약 5만6천497명이며 액수는 1천270억달러(175조원)이다.

CBP 측은 신청 사례들 중 통상적으로 수동 처리가 필요한 유형이 있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29억달러(4조원)라고 설명했다.

CBP는 이를 수동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기관의 업무 부하가 급격히 늘어나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수입업자들은 환급 절차를 밟는데 드는 비용이 이익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앞서 세관 당국은 환급 시스템 가동 날짜를 20일로 정했다고 10일에 발표하면서, 환급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케이프 시스템을 통한 관세 환급은 일단 최근에 수입된 제품들에 붙은 것과 복잡한 내용이 없는 신청부터 이뤄지게 된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위법으로 판결된 관세를 낸 수입업체는 33만여곳이며, 수입품 선적 건수는 5천300만건이다. /연합뉴스

### 인도 중부 발전소 보일러 시설 폭발

#### 10명 사망·23명 부상...배관 과열 추정

인도 중부에 있는 발전소에서 보일러 시설이 폭발해 10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과 인도 방송 NDTV 등에 따르면 전라 중부 차티스가르주에 있는 발전소에서 보일러 시설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했다고 인도 당국은 밝혔다.

사고가 난 발전소는 차티스가르주 주도 라이푸르에서 230km가량 떨어진 사크티 지구 상히타리아에 있으며 광물·에너지 개발 업체 베단타리소스의 자회사인 베단타리미티드가 운영하고 있다.

인도 에너지-철강 대기업인 베단타 그룹은 인도 역만장자인 아날 아가르왈이 이끌고 있다.

발전소 관할 경찰서의 P.K 타루르 서장은 보일러 배관이 과열되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베단타리소스는 사고 후 성명을 내고 “(상히타리아 공장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원인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대만 외교부 “외국인 거류증 ‘남한’ 표기는 유지”

### 전자입국신고서 국적 표기와는 별개

한국 전자 입국신고서상 ‘중국(대만)’ 표기를 둘러싸고 한국과 대만 사이에 벌어졌던 신경전과 관련, 대만이 전자 입국 등기표(신고서)와 별개로 이미 변경한 외국인 거류증 상의 ‘남한’ 표기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년간의 교섭에도 변화가 없었다는 게 대만 매체 설명이다.

이번 갈등은 한국 측이 지난해 2월 전자 입국 신고서상의 출발지·목적지 항목에 ‘대만’ 대신 ‘중국(대만)’으로 쓰는 데 대만 측이 반발하며 불거졌다.

대만 측은 지난달 대만 외국인 거류증 상의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바꾼 데 이어 3월 말까지 긍정적 답변이 없으면 전자 입국 등기표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밝

힌 바 있다.

이후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전자 입국신고서에 ‘직접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 삭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국(대만)’ 표기가 들어가는 칸이 없어진다고 말했다고, 10일께 실제 이행했다는 게 대만 매체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만이 지난달 바꿨던 외국인 거류증의 ‘남한’ 표기를 ‘한국’으로 되돌릴지가 관심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